



전주매일



호남 지역 유일 생존 독립 유공자였던 이석규 애국지사(사진)가 13일 새벽 별세한 가운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3일 빈소가 마련된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국 독립에 평생 바친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조문을 하고 있다.

도-시군, 상생발전 머리 맞대

정읍서 민선9기 도민주권 대전환 상생발전 정책 라운드
도지사-시장·군수 한자리에… 체감성장 등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14개 시·군과 한자리에 모여 지역 상생발전과 체감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도는 13일과 14일 1박 2일간 정읍 아우름캠퍼스에서 이원택 도지사를 비롯해 14개 시장·군수, 도 및 시·군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도민주권 대전환 도-시군 상생발전 정책 라운드'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 2면)

이번 행사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와 14개 시군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협력회의로,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과 주요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군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발굴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첫날 첫 세션에서는 하정우 전 청와대 시민예술평가위원이 '내재 불가 대

한민국을 위한 AI전략과 전북의 성장 기회'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하정우 의원은 국가 AI 정책을 총괄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산업 흐름과 국가 전략을 설명하고, 전북이 퍼지컬 AI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대응 방향과 지역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진 정책 논의에서는 체감성장·미래창달·관광 등 민선9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담당 실국장이 분야별 주요 정책과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이후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가 함께 지역 현장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나누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업·자본·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자립형 성장체계 구축(체감성장) △현대자동차 새만금 투자 연계 첨단 산업 육성(미래창달) △전북 관광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관광)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도와 시군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예산 심의 동향을 공유하고 국회 심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점검하며, 도와 시·군 연계사업과 중장기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안도 논의한다. 지역 현안과 국가정책을 연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중앙부처 대응에 도와 시·군의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민선 9기 도정은 도민이 지역 발전의 주체가 되는 도민주권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도민주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통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성장의 출발점이 되도록 14개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15일 '광복절'로 인한 연휴에 따라 18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호남 유일 생존 독립유공자 이석규 애국지사 별세

조국 독립에 평생 바친 헌신, 기억하겠습니다

향년 99세… 이원택 도지사, 빈소 찾아 고인의 영면 기원

민주 도당 "몸소 보여주신 헌신, 다음 세대까지 잇도록 할 것"

광복회 주관 사회장으로 엄수… 15일 전북도청서 영결식

호남 지역 유일 생존 독립 유공자였던 이석규 애국지사(사진)가 13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9세로 일기로 별세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고인의 빈소를 찾아 영면을 기원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지사는 조문 자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젊음을 바치고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이석규 애국지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애국지사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과 전북이 있을 수 있었다"면서 "그 삶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후대에 전해야 할 소중한 역사"라고 애도했다.

이석규 애국지사는 1926년 전북 완주에서 태어나 1943년 광주사범학교 재학 당시 학우들과 독서회를 조직해 민



족의식을 키웠다. 이후 독립선언문을 필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는 한편,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정

부는 이러한 공훈을 기려 2010년 3월 1일 대통령표창을 수여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해마다 3·1절과 광복절에 고인을 찾아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며 예우해 왔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애국지사님께서 평생 지켜오신 나라 사랑과 독립 정신을 전북의 미래세대가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그 숭고한 뜻이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석규 독립운동가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애국지사의 헌신을 기억하고 광복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광복절을 앞두고 맞이한 이석규 지사의 별세가 더욱 안타깝고 애痛하다"며 "방복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독립을 위해 목숨과 청춘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으로 이뤄낸 역사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규 지사가 몸소 보여주신 독립의 정신과 나라를 위한 헌신을 기억하고 그 뜻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삼가 이석규 애국지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인의 장례는 광복회가 주관하는 장례위원회 구성 아래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전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거행된다.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옮겨 안장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화재 복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

민주 정동영 의원, 현장 방문·정부 건의… 신속 확보 견인

시, 확보된 재원으로 소실된 피해시설 복구·상인 신속 지원

전주시는 최근 발생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정동영 통일부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경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오후 11시 13분경 덕진구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4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해당 건물이 전소돼 17개 점포 상인의 영업 기반을 잃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해 추석과 가을철 성수기를 앞둔 상인들의 피해가 커

조속한 복구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동영 장관과 조지훈 전주시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 등은 화재 발생 직후인 지난 10일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상인 지원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한 정 장관의 신속한 대응과 전주시의 긴밀한 협력이 맞물리면서 화재 발생 3일 만에 특별교부세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에 확보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은 재난 복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화재로 소실

된 도매시장 시설 복구와 피해 상인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확보된 특별교부세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 점포 마련 등 피해 상인의 영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정동영 장관은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확보된 재원이 신속한 복구와 상인들의 생업 회복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정동영 장관님의 발 빠른 지원으로 복구의 물꼬를 텃다"면서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확보된 재원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30TH
ANNIVERSARY

무주반딧불축제

2026.
9.4(금) - 9.12(토)

주최 : 무주군
주관 : 무주군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17
문의 : 063) 324-2440